

그냥드림센터 전국 확대 추진

- 기획처, “따뜻한 공동체” 정책현장 첫 행보 -

- 그냥드림센터와 청년미래센터 방문, 복지 사각지대 간담회
- 위기가구·취약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27년 예산에 중점 반영
- “신청을 기다리는 복지 대신 필요한 분에게 먼저 손내미는 복지” 강조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리 차관은 2월 4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그냥드림센터(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와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획예산처 “따뜻한 공동체” 첫행보로, 위기가구·취약청년 등을 지원하는 일선 복지정책 현장을 찾은 것이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에서 공직을 새로 시작하는 청년공직자들이 민생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현장방문 개요 】

- ① **(그냥드림센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2만원 한도의 기본 먹거리·생필품* 제공, 2회 이상 방문시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연계('26년 73억원, 150개소)
* 식품키트, 쌀, 라면, 통조림, 휴지 등
- ②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사례관리('25 4개소, 40억원 → '26 8개소, 51억원)
* 가족돌봄청년: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청년 (15만명, 데이터터)
** 고립·은둔청년: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54만명, 보건사회연구원)

《 ① 그냥드림센터 방문 》

그냥드림센터 운영·물품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그냥드림센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운영개시 후 2개월간 3만 6천여 명이 방문하여 6천여 명이 기본 상담을 받았으며, 2천 2백여 명은 심층상담을 진행하였고, 그중 200여 명에 대해서는 관련 복지사업을 연계* 중이라고 그간 실적을 안내했다.

* **(지원사례)** 경기도의 40대 신용불량자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당장 끼니를 해결할 즉석밥과 라면 등을 지원받기 위해 '그냥드림센터' 방문,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 진행.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 지원과 함께 채무조정 절차까지 안내 받으며 재기 기회 부여

임 장관직무대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크게 정리하면 ①초혁신 경제 구축, ②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일이며, 초혁신 경제 구축도 따뜻한 공동체로 가는 길 위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굶는 사람만큼은 없어야 하고, 이게 될 때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냥드림센터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민관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직무대리는 현장에서 제공 물품과 이용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였다. 가상 프로필을 활용하여 직접 수혜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소개 받는 상담을 하였다. 이후 기획예산처는 쌀, 식품키트 등 소정의 물품을 기부하였다. 정부는 그냥드림센터를 '26년 5월에는 150개로 확대하는 등 전국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② 청년미래센터 방문 》

이어 임 장관직무대리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자기계발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충북 청년미래센터에 방문하였다. 청년미래센터는 '24년 8월 4개 시도에서 처음 개소하여 '25년 12월까지 가족돌봄청년 2천 6백여 명에 대해 상담, 방문간호 서비스 연계 등 밀착사례 관리를 지원했고, 고립·은둔청년 1천 7백여 명에겐 맞춤형 상담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준비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취약청년, 조손가정, 미혼모·부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를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돌봄청년 15만명, 고립은둔청년 54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취약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간담회 】

- 일시/장소 : 2.4.(수), 15시 20분 / 충북 청년미래센터
- 참석자 : (기획예산처) 차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민복지예산과장, 수습사무관(7명)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복지정책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정부) 충북도청·청주시청 복지 실무자, 그냥드림센터장, 청년미래센터장

임 장관직무대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공무원, 복지현장 종사자들과의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임 장관 직무대리는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 10년간 2배 이상 확대(¹⁷129.5→²⁶269.1조원)하는 등 큰 틀에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거의 완성단계”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정책 과제이며 미비한 부분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신청을 기다리는 현행 복지 대신 필요한 분에게 먼저 손 내미는 복지”를 주문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복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주요 예산을 2025년 3,572억원에서 2026년 4,246억원으로 18.9% 증가시켰으며, '27년 예산에도 그냥드림센터, AI복지행정 등 미포착된 위기가구 발굴·지원 투자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 복지 사각지대 보완 주요 사업 】

사업명	예산(억원)		주요내용
	'25	'26	
합계	3,572	4,246	
긴급복지	3,501	4,053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생계·의료 지원
먹거리 기본보장	-	73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25년 150개소 운영)
AI 복지콜	-	15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추출된 위기가구에 대해 AI전화연결로 고위험 가구 선별(10개 지역)
복지행정 AI 안내도우미	-	10	복지급여 신청과 이의제기·소명 필요 서류를 AI로 안내
청년미래센터 운영	40	51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상담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	8	전국단위 교육, 성과평가, 홍보 등 정책 지원
좋은 이웃들	31	36	자원봉사자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위기구호비 지급

간담회에서는 복지부, 충북도청, 청주시청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복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행정복지 센터 일선 공무원들과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 연계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27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에 함께한 수습사무원들은 “사무실 밖을 벗어나 현장에 방문했더니 정책의 발이 현장에 항상 닿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책상과 현장의 차이를 좁히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기획예산처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향후 취약계층, 지역, 산업 등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과 협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예산실 국민복지에산과	책임자	과 장	박철건 (044-214-2910)
		담당자	사무관	성호영 (hysung0125@korea.kr)



참고 1

그냥드림센터 개요

◇ 최초 방문시 2만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2회 이상 방문시 복지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생필품 안전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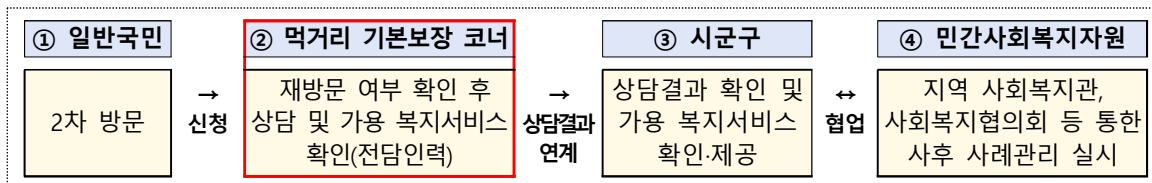
□ 예산(국비) : ('26) 73억원 (신규)

□ 주요내용

○ (지원내용)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기본보장 코너에 방문하면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원 한도) 제공

* 식품키트, 쌀, 마스크, 라면, 통조림, 우유, 휴지, 비누, 목욕용품 등

- 동일인이 2회 이상 방문시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



○ (지원절차) 전국 150개 푸드마켓에서 먹거리·생필품 현장 제공

- 지원물품은 정부·지자체가 구매, 기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업 등을 통한 민간 기부도 병행

□ 기대효과

○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 사회복지 상담 연계로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을 적극 발굴

◇ **지역사회 내 新사각지대 위치한 13~34세 가족돌봄, 19세 이상 고립은둔청년 전담발굴·지원**

⇒ **지역 내 역량 있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전담인력이 밀착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예산(국비) : ('25) 40억원 → ('26) 51억원

□ 주요내용

① (13~34세 가족돌봄청년) 1:1 밀착 사례관리 지원

- (상시 전담발굴체계) 학교·병원 등과 원스톱 발굴·연락체계 구축
- (1:1 밀착 사례관리) 청(소)년 성장에 초점을 둔 ‘자기발전계획’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복지·다양한 서비스 연계

* (기본연계) 초기상담, 일상돌봄, 심리상담서비스(가구 전체) / (아픈가족)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의료·돌봄 지원 / (청년본인)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및 금융·교육·취업 등 5대 서비스 연계

② (19~34세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13~18세 성평등부 연계)

- (전담발굴)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쳐 객관적 고립도 확인
- (일상회복 서비스 제공)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일정수준 회복 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지자체 현장방문 지원) 고위험군 대상 지자체와 협업 현장발굴

□ 기대효과

- 어려운 취약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